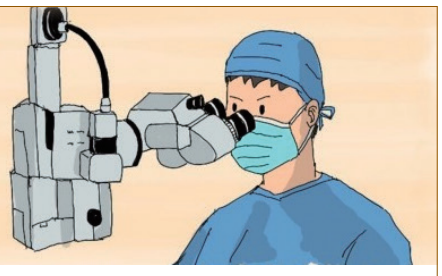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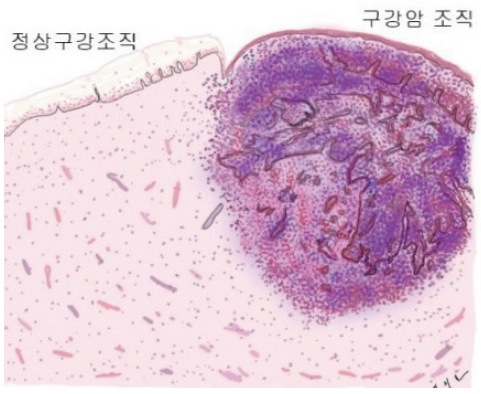
이지호 교수의 알기 쉬운 구강암 -구강암의 증상

'만화 그리는 치과의사' 이지호 교수(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)의 구강암 이야기 만화를 6회에 걸쳐 연재합니다. 이지호 교수는 구강암, 안면골절 및 재건 전문가로 격무의 와중에도 틈틈이 블로그를 통해 만화를 연재해 왔습니다. 블로그 '이지호 교수의 구강암과 턱얼굴 재건 이야기' 참조〈편집자주〉.

글, 그림: 이지호
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
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부교수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
전문분야: 구강암, 안면골절 및 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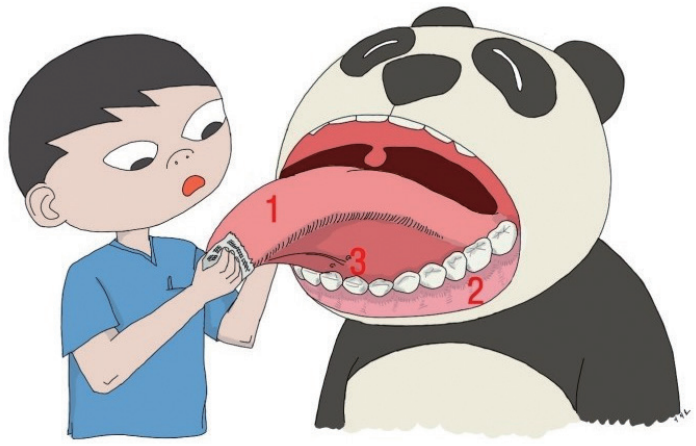


구강암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편평상피암종 (squamous cell carcinoma) 을 중심으로 구강암의 증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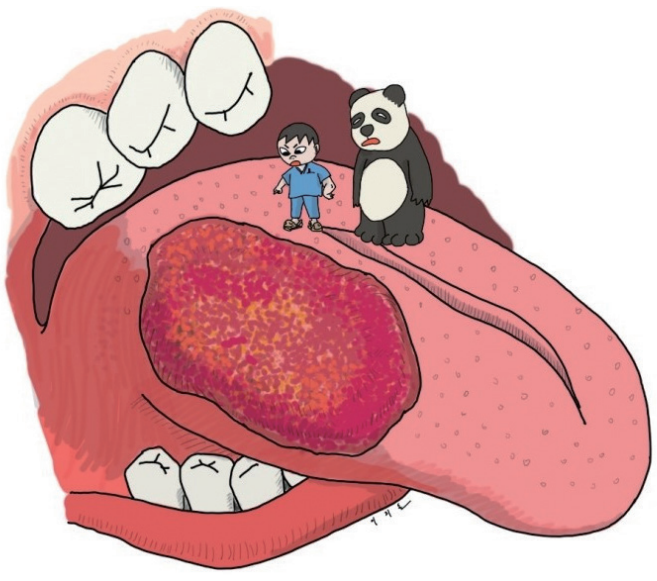
구강암은 구강내 모든 부위에 발생할 수 있으며 혀 〉 잇몸 〉 구강저 순서로 자주 발생합니다. (1996.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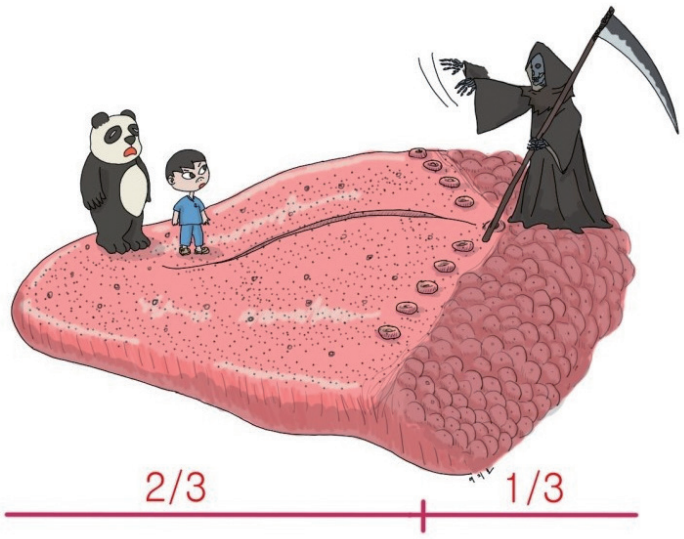
먼저 혀 암 (설암)입니다. 구강내 만성적인 자극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

혀의 측면에 잘 생기고, 백반증이나 궤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.
(백반증: 구강암의 전암병소 – 알기쉬운 구강암의 '구강암의 초기증상' 편을 참조하세 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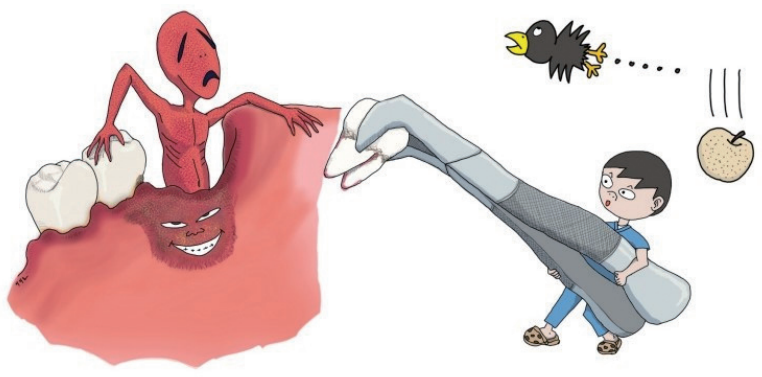
혀는 앞 2/3 (구강설)과 뒤 1/3 (기저설)로 나뉘는데 뒷부분에 발생할 경우 예후가 불량합니다.



잇몸암 (치은암)은 염증병소와 유사해서 치주질환으로 오진 되기도 합니다.



위턱보다 아래턱에 잘 생기고 잇몸에 궤양이나 사마귀 같이 자라서 올라 오기도 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치아를 빼고 그 자리가 아물지 않고 병소가 점차 커지면서 발견되어, 치아를 빼면서 구강암이 생겼다고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
그러나, 실제로는 잇몸에 생긴 구강암이 별다른 증상없이 진행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어 발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